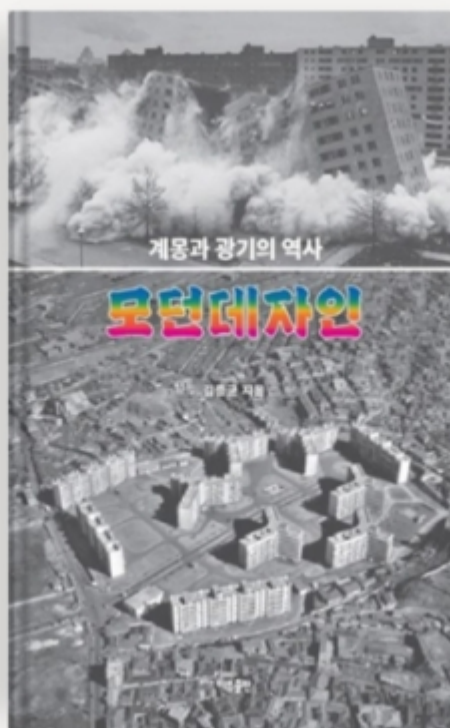


2025 다다른 북토크

김종균

모던디자인

계몽과 광기의 역사



6/13 (금) 오후 7시 30분

다다르다 두 번째 공간 대전 중구 중교로76, 3층

d/R

2025 다다른 북토크

모던디자인

계몽과 광기의 역사

6/13 (금) 오후 7시 30분

다다르다 두 번째 공간

김종균

세상 모든 역사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한국의 디자인사엔 밝은 면만 남아서 지면을 채우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 충남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런던 킹스톤대학교에서 큐레이팅 전공으로 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의 예술과 디자인,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해왔다. 저서로는 『한국의 디자인』(2013), 『디자인 전쟁』(2013), 『바우하우스』(2019), 『Encyclopedia of East Asia Design』(2019), 『History of Design and Design Law』(2022) 등이 있다.

서구의 시각과 다른 각도에서 예술과 디자인의 역사를 살피는 책이다.

저자 김종균은 우리가 읽어온 모던디자인 이론서들이 한결같이 계몽주의를 예찬하고, 서유럽의 역사적 승리 과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계몽과 이성을 앞세운 모더니즘의 이면에는 광기와 무의식의 전근대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와 진화론, 정신분석학이 모더니즘 정신과 디자인을 형성하는 한 축이며, 불세비키 혁명이 모더니즘 조형 언어를 완성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내 전문가는 물론, 서유럽과 미국의 역사가들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변혁의 시대에서 소외되었던 우리가 모던디자인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오랜 시간 숙고하며 연구와 강의, 읽기와 쓰기를 거듭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이자 한국 디자인의 '독립선언'을 위한 시론이라 해도 좋다. 저자는 예술과 디자인, 법학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이야기꾼으로, '글로 말하는' 능력을 이 책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남다른 열정과 문제의식, 비판적 사유로 한국 디자인의 현실을 돌아보는 저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독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유출판)

2025 다다른 북토크

모던디자인

계몽과 광기의 역사

6/13 (금) 오후 7시 30분

다다르다 두 번째 공간



읽을 만한 디자인 역사책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도시, 집과 물건의 모양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그럴 겨를도 없는 것 같다. 건축 관심이 있어 디자인 서적을 펼쳐 보면 열에 아홉은 서구의 이론만 되풀이한다. 한때 지구를 지배한 종교의 폐단과 식민지 제국주의, 세상의 절반을 차지했던 사회주의, 자유를 향한 민중의 열망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길으로 드러난 화려한 양식만 훑는다. 멋들어진 화보집은 많은데 '읽을 책'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은 '볼 만한' 책이 아니라 '읽을 만한' 디자인 역사책으로 기획했다. (저자 김종균)

2025 다다른 북토크

모던디자인

계몽과 광기의 역사

6/13 (금) 오후 7시 30분

다다르다 두 번째 공간



한국 디자인사의 현실

우리는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전통을 없애버렸고, 곳곳에 국적 없는 건물을 남겨 놓았다. 뜬금없이 기와지붕을 쓴 건물이 현재까지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기하학적으로 힘을 준 기념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그곳에 왜 그런 모양의 조형물이 서 있는지 모른다. 한국 근대 예술에는 왜 모두 추상 작가들뿐인지, 한국에서는 왜 세계적인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

모두 한국 디자인 역사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이야기만 한다. 흡사 나는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났는데, 옆 동네의 부잣집 아들의 족보를 꿰고, 그 집 아버지의 가훈을 익히며, 그 집안의 가풍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저자 김종균)

